

상장사, 출렁이는 증시에 '자사주 소각' 카드 꺼낸다

올 주식소각 결정 공시 90건
고려아연·한섬·네이버·금융권 등
자사주 매입·소각 예고 활발
투자자, 주주환원 정책 관심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상장사들이 주가 부양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연말 배당을 앞두고 주주환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어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주식소각 결정 공시는 90건으로 지난해 65건을 넘어섰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주주 환원책의 일환으로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내년 5월 8일까지 한국투자증권과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한섬도 내년 2월까지 자기주식 49만



코스피가 전 거래일(2403.76)보다 29.49포인트(1.23%) 오른 2433.25에 마감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74.42)보다 19.77포인트(2.55%) 상승한 794.19,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16.8원)보다 3.8원 오른 1328.9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2600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 73만 8900주를 포함해 총 123만1500주를 내년 2월 안으로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수의 약 5%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지난달 31일 발행주식의 1%에 해당하는 자사주 164만491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5월 향후 3년간 자사주의 총 3%를 매년 약 1%씩

소각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셀트리온, SK텔레콤, 현대차 등 대형 상장사도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각 결정 등을 통해 주가 가치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자사주 소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0일 자사주 484만 5744주, 약 2001억원 어치를 이달 30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소각되는 자사주 물량은 지난해 이 회사가 자회사 합병을 발표하면서 취득했던 물량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에만 이미 세 차례 걸쳐 4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데 이어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다.

자사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매

입을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소각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소각해 유통 주식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끌어 올린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보다 뛰어난 주주환원 정책으로도 평가받는다.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 16%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 상승효과를 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사주 소각을 검토하는 상장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SG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온 데다 스튜어디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채택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주주들이 많아졌다”며 “따라서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으로 연결시키는 주주들의 요구는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셀트리온그룹, 주식매수청구액 79억에 그쳐 파두, 주가 급락에도...소통·대응 '0점' 수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각 63억·16억... 반대 주식수 0.19%
재무 부담 줄이며 합병 절차 마무리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양사 합계 총 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집계된 주식은 각각 셀트리온 4만 1972주(약 63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만3786주(약 16억원)다. 양사 합산 주식수 기준 총 합병반대 표시 주식수의 0.19%에 그쳤다.

이에 따라 통합 셀트리온은 재무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12월 28일 출범을 거쳐 본격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1월 12일 신주 상장까지 진행되면 양사 합병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갖

는 주주가 기업에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아질 수록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회사측은 합병 초기 예상을 크게 밑도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합병 이후 통합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의 합병에 대한 시장내 우려도 사실상 완전 해소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양사 합병 성공에 가장 큰 관건이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합병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며 “2030년 12조원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마일스톤이 또 하나 달성되면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을 통해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체 사업 사이클이 일원화됨에 따라 원가경쟁력 강화에 따른 공격적인 가격전략 구사가 가능해져, 판매 지역 및 시장점유율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짐펜트라가 미국 내 신약 허가 획득에 성공하고 2025년까지 선보일 5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과 허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성장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양사는 최근 3분기 실적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매출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 경영 성과가 나타나면서 향후 성장확장성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규 제품 출시와 파이프라인 개발 및 허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퀀텀 점프를 통한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약도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세경 기자
연장 클릭

파두, 주가 급락에도...소통·대응 '0점' 수준



파두 충격이 쉬이 끝나지 않을 모양새다. 전일 소폭 반등했던 주가는 14일 다시 6.99% 하락한 1만7710원으로 떨어졌다. 한때 2조원을 넘어섰던 시가총액은 8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파두는 전일 A4용지 5장 분량에 달하는 해명글을 내놓았지만 투심은 하루 만에 차갑게 돌아섰다.

시총 1조5000억원의 대어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파두였다. 상장 직후 네이버, 아마존 등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지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랬던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

투자자들은 ‘소통의 실패’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무엇보다 화를 키운 건 기업이 매출 공백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였다. 지난 8일 파두가 공개한 3분기 누적 매출은 고작 180억원, 상장 당시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15%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5000만원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이 더 컸다.

파두의 상장일은 8월 7일, 이미 3분기 중반을 향해 가는 시점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2분기 실적은 7월 말 공개되고, 반기보고서 역시 8월 15일을 전후로 나온다. 회사는 해명글에서 “2분기에 기존 고객들의 발주가 취소됐으나 단기적인 재고 조정이고 다시 구매가 재개되고 신규 고객들이 더해진다”며 3, 4분기 실적이 달성되리라 예상했다”고 했다.

상장 당시 경영진이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는 인지했다는 얘기가. 하지만 파두는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과 공식 I

ROI 진행되던 7월 말,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상장을 허용한 한국거래소와 주판사는 “기업이 밝히지 않는 이상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누구를 믿어야 했던 걸까.

기업의 무성의한 대응도 분노를 키우고 있다. 실적 충격으로 주가가 45% 급락할 동안 회사측 대응은 전무했다. 장문의 해명글을 낸 건 기관투자자 대상 IR 진행 후 4일이 지난 후였다. 파두는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장과의 소통은 0점 수준의 행태를 보여줬다.

시장과의 소통 창구인 IR부서의 대응 역시 낙제점이다. 투자자 A씨는 반나절만에 겨우 연락이 닿은 파두 IR임원에게 어떻게 예상 매출액이 이렇게 빛나갈 수 있느냐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기업이 시장 상황을 모두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돌아왔다.

A씨는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는 IR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담당자의 적반하장 태도가 화를 키웠다”며 “파두는 지금이라도 IR 담당자를 다시 채용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두 IR 총괄임원은 반도체 기업인 S사와 L사를 거쳐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는 IR 전문가이기보단 반도체 전문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파두가 상장 심사 당시 매출 공백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파두가 실제 법과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충격을 이만큼 키웠다면 이는 IR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꿈을 먹고 사는 이익미실현 기업에게 있어 시장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seilee@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규정화

내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규정화했다.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다.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미비점이 있다면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

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은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을 따라도 된다.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요구절차와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도 마련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먼저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 산업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했다. 해당 상장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